

# ISR 저널의 실무 지향적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Transforming ISR into more Practitioner-Oriented Journal

김 성 근 (Sung Kun Kim)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장 시 영 (Si Young Jang)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정 승 렬 (Seung Ryul Jeong)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학부

이 재 남 (Jae-Nam Lee)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요 약

학회 저널은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할 귀중한 재산이다. 최근 ISR 저널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오고 있다. 특히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의 공유 장소라는 원래의 목표가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ISR 논문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ISR 저널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논문의 성격과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학회 모두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키워드 :** 저널, 실무, 이론, 편집

## I. 서 론

학회에서 저널이란 학회의 표상이다. 어떤 학회 이든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학회 회원의 지식공유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학회 저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법이다. 본 학회에서도 창립 직후부터 공식 학회지로 '경영정보학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우리 분야 연구자의 귀중한 연구 이론 및 분석 결과를 싣고 이를 통해 지식의 확산 및 창출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경영정보학 분야가 응용 학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목표,

즉 '현장에의 기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에 1999년 학회에서는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저널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이하 ISR)를 창간하게 되었다. 매년 2회씩 발간되어 오다가 근년에는 년 3회씩 발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창간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ISR 저널은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자 했던 원래의 창간 의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술지향적인 논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저널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ISR이 '경영정보

학연구'와 비슷하게 이론적 연구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의 보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이 문제에 대해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회, 그리고 회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년 7월경 이런 문제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조치를 늦출 수 없고, 학회와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해결 대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전 회원에게 전달하였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학회에서는 2종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연구’와 ISR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자는 이론적 연구, 후자는 실무 지향적 연구의 게재를 목표로 해왔었습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영정보학의 이론적 연구의 증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게재 신청 및 게재 결과를 보면 이 두 저널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이 이론적 연구, 실증 검증 차원의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IT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지향적 연구의 수행 및 게재 신청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학회장, 양 편집위원장, 연구담당 부회장, 그리고 차기학회장이 몇 차례 의견 교환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1. 연구 내용이 이론적이고 실증 검증에 치우친 경우에는 ISR이 아니라 ‘경영정보학 연구’로 게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9월 1일(공지일 부터 약 2개월의 유예기간에 해당) 부터는 ISR로 게재 신청되는 이론적이고 실증적 연구는 ‘경영정보학 연구’ 편집위원장에게로 자동 이송될 것입니다.

2. 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연구를 ISR에 적극적으로 게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회에서는 ISR 저널이 우리의 고객인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읽히고 실무 지향적 아이디어의 보고로 자리 매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지는 학회 저널을 통해 이론적 연구의 증진 및 산업계와의 연구 강화를 시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SR 저널이 실무 지향적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회 및 회원들의 인식변화가 절대적이지만, 이와 같은 변화의 실행 과정에서 ISR 저널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첫째, ISR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의 양이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로 이론적 연구를 선호하거나 또는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실정상 ISR에 투고할 논문의 절대량이 줄어들 것이란 점이다.

둘째, ISR의 성격 재정립을 위해서는 논문의 심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예전 처럼 이론 중심의 투고논문을 심사해오던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큰 숙제로 다가왔다.

셋째, 국내 대형 SI업체에서 발간되는 실무 저널들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또는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된 셈이다. 이들 저널은 우리 ISR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향성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실무 지향적 연구 논문이 경쟁 저널로 몰리게 되면 앞에서 지적한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SR 저널의 성격 재정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이상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바, 이제는 우리 모두 ISR 저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어떤 성격의 저널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의 논문이 권장되어야 하는가?; 주로 어떤 연구방법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가?; 심사 프로세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논문 모집 방안에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몇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모든 회원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 수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본고는 ISR 저널에 게재된 기존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실무 지향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실무 지향적인 저널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SR 논문의 현상적 분석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ISR 논문 투고, 심사 프로세스 및 논문 모집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II. ISR 저널에 게재된 기존 논문의 분석

본 장은 이제까지 ISR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ISR 저널이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자 했던 원래의 창간 의도대로 정립되어 왔는지를 실제 게재된 논문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논문의 발표 저자의 구성 및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향후 ISR 저널이 추구해야 할 논문의 성격과 심사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2.1 분석 대상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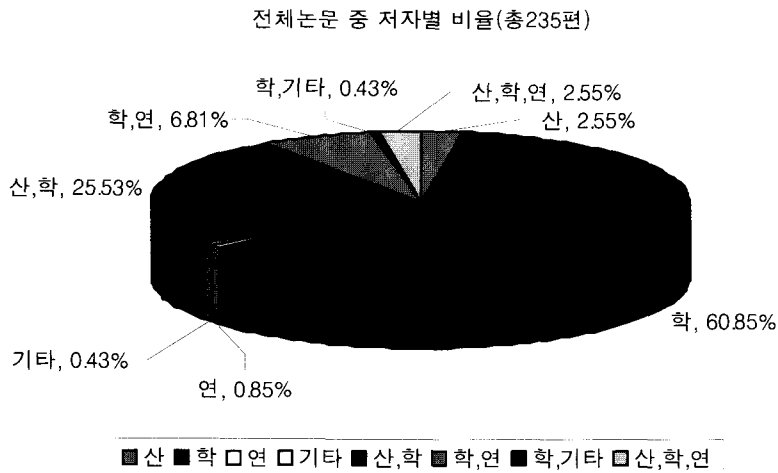
ISR 저널이 창간된 시점부터 분석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게재된 논문의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즉, 제1권 제1호(1999년 6월)에서부터 제9권 제1호(2007년 4월)까지의 논문 235편이 분석 대상이었다.

### 2.2 논문 저자에 대한 분석

ISR 저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보시스템 관련 이론과 실무 사례들을 현장실무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런 지식 공유 및 확산의 무대에는 여러 다양한 주체가 많이 참여할수록 원래 의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특히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문가들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ISR 논문의 저자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논문 발표 당시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학계, 산업계, 연구소, 관개로 일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저 논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계(학계의 단독저자 또는 학계로만 구성된 공동저자 논문 모두 포함), 산업계, 연구소, 관계, 산·학, 학·연, 학·관, 산·학·연 등 8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저자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단연 학계이었고 전체의 60.85%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산업계 논문은 2.5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였다.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이 25.53%에 있다. 이는 외관상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제법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이들 논문의 대부분이 산업계 종사자가 수학하는 대학원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산학 활성화의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적



〈그림 1〉 논문 저자의 소속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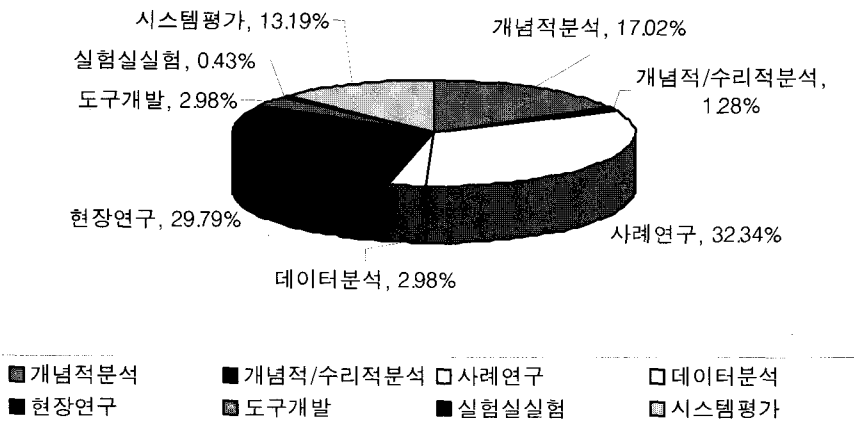
으로 볼 때, ISR 논문은 거의 대부분 학계 전문가에 의해 작성 또는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3 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ISR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MIS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MIS 분야에서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Vessey 등(2002)의 연구방법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특히 한국경영정보학회의 또 다른 학술지인 ‘경영정보학연구’의 게재논문을 분석한 김기문 등(2005)의 연구에서도 이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ISR 논문의 연구방법과 ‘경영정보학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을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도 이 분류체계를 선정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논문 중 연구방법론별 비율(총23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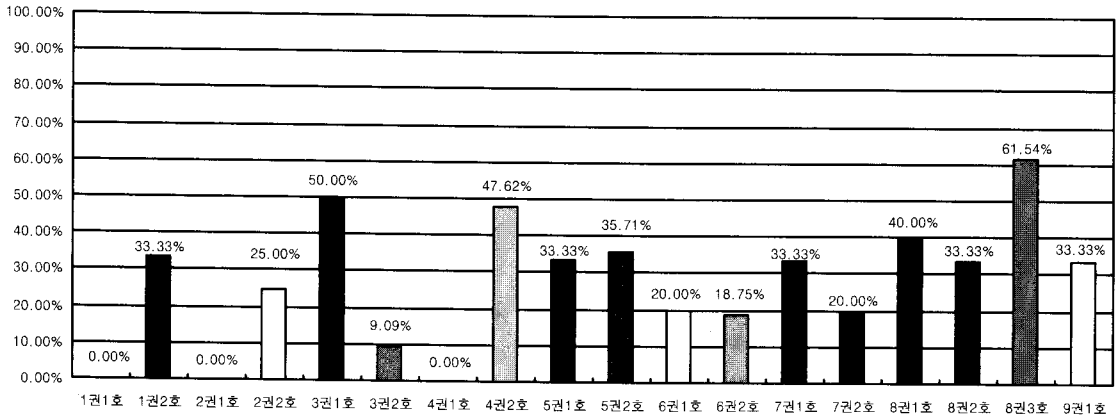


〈그림 2〉 논문의 연구방법별 구성

<표 1> ISR과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방법 비교

연구 방법	ISR 구성 비율(%)	경영정보학연구 구성 비율(%)
개념적 분석	17.02	6.4
개념적/수리적 분석	1.28	3.1
사례연구	32.34	8.7
데이터분석	2.98	5.0
현장연구	29.79	50.4
도구개발	2.98	0.6
실험실실험	0.43	5.3
시스템평가	13.19	20.4
계	100	100

현장연구



<그림 3> 호당 현장연구 논문 비율 추세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R 게재 논문이 채택한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32%와 현장 연구 30%가 주종을 이루며,<sup>1)</sup>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이 전체 논문의 2/3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개념적 분석과 시스템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데이터분석, 실험실실험, 수리분석, 그리고 도구개발과 같은 연구방법은 거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아도 서베이 방법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게재 논문들이 학술적 성

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ISR 논문의 연구방법을 ‘경영정보학연구’ 논문과 비교해 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R의 사례연구 비중은 ‘경영정보학연구’보다 높은 편이라 말할 수 있으며 개념적 분석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경영정보학연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현장연구의 경우, ISR에서도 전체 논문수의 30%에 가량에 이를 정도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ISR의 현장연구 논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은 ISR 저널의 매 호당 현장연구 논

1) 현장연구는 ‘field study’를 번역한 것으로서 주로 survey를 활용한 연구방법을 말한다.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ISR** 저널이 창간된 첫 3, 4년의 경우 현장연구 논문이 매우 미미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현장연구 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제8권 제3호의 경우 현장연구 논문이 61.5%로 '경영정보학연구'의 현장연구 평균 구성 비율인 50.4%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ISR** 저널과 경영정보학연구와의 차이점이 차츰 좁아져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ISR**이라는 새로운 저널을 창간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과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II. ISR 논문 투고에 대한 제언

본 장에서는 **ISR** 저널이 보다 실무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현장 업무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고되는 논문들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논문의 종류, 구조 및 방식, 그리고 실무적 의미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ISR** 저널에 제출되는 논문들은 아래에서 명시된 제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ISR** 저널이 다른 저널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3.1 논문의 종류

**ISR**이 원래 취지에 적합한 저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 연구, 개념적 연구, 새로운 동향에 대한 연구 등이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물론 기존의 데이터 분석, 실험 연구, 현장 연구 등과 같은 실증적인 측면이 강한 논문은 무조건 **ISR**에 투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논문의 기술 형태가 연구의 엄격성(academic rigor)보다는 현장업무에의 관련성이나 시사점에 초점을 두어 실무자들의 지식 축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하겠다. **ISR** 저널에 적합한 논문의 종류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례 연구(Case Research)

사례연구는 한 기업 또는 여러 기업들의 정보 기술 도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 연구 논문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기술/정보시스템 이벤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고 전달해야만 한다. 큰 범주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나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도 여기에 포함되며 에스노그래픽 연구(ethnographic research)도 **ISR** 저널에 적절한 종류가 될 수 있다.

#### ② 새로운 동향 연구(New Trend Research)

새로운 동향에 대한 연구는 기업들의 과거 및 현재의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을 근간으로 미래의 정보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또는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근간으로 하기 보다는 현장의 실무적인 경험과 예측을 통해 미래의 정보기술 동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논문에 있어서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술 및 관련 현상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발전과정, 현황 등을 풍부한 문헌에 기초해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연구 보고서(Research Reports)

연구 보고서란 최근에 완료된 논문을 근간으로 새로운 발견이나 관점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논문이다. 단, 여기서 완료된 논문은 아직 다른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정보기술 분야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을 시기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당 논문에서 새로이 수집된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보고서는 분석이나 이론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심도 깊은 자료의 수집

및 이에 대한 탐색적(exploratory), 기술적(descriptive) 분석 결과의 제시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정보기술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실무적 연구(Executive Research)

실무적 연구라 함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교환, 개념적 틀, 설명 그리고 제언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다른 일반적인 학문적 연구와는 달리 실무적 연구들은 이론을 강조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과거의 문헌들을 근간으로 보다 풍부한 방향제시와 제언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실증 연구(Empirical Research)

실증적 연구는 주로 실험연구나 서베이 기반의 현장연구(survey based field study)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종류들에 비해 ISR 저널의 실무 지향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증 연구는 ISR 저널에 게재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연구 중에서 일부 연구들은 실무자와 현장 업무에 초점을 두고 논문을 기술하여 실무적 공헌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ISR 저널에 게재가 가능하다.

3.2 논문의 구조 및 방식

ISR 저널에 제출되는 논문들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종류 중에 하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논문 자체의 구조 및 방식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특별한 제약이 있지는 않다. 다만, 전통적인 학문적 연구의 목차 또는 구조를 가진 논문을 ISR 저널에 게재하는 것은 ISR 저널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자들은 ISR 저널에 적합한 실무 지향적인 논문의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를 하여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 <표 2>는 전통적인 학문적/실증적 연구의 목차와 ISR 저널에 적합한 논문의 목차를 예시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물론 아래 표는 ISR 저널에 적합한 다양한 논문 구조들 중에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을 뿐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 논문의 전략

ISR 저널이 추구하는 실무적인 의미와 공헌도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학문적/실증적 연구의 틀, 특히 학문적 엄격

<표 2> 학문적/실증적 연구와 ISR 저널에 적합한 논문 구조의 비교 예시

학문적 실증적 연구 목차	ISR 저널에 적합한 논문 목차의 예
1. 서론	1. 서론
2. 문헌 연구	2. 연구의 실무적 배경 또는 동기
3. 이론적 모형 및 가설	3. 현재의 상황 및 문제점
4. 연구 방법론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전략
5. 자료의 분석 및 결과	5.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과정
6. 논의 및 의미	6. 실무적 의미 및 제언
7. 결론	7. 결론
8.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성의 추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ISR 저널에 제출되었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ISR 저널이 다른 국내의 학문적 저널들과의 차별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ISR 저널이 다른 저널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ISR 저널의 identity"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산/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ISR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들은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논문들은 ISR 저널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1. 실무적으로 명확한 의미(Implications) 및 공헌(Contribution)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중심적인 내용 및 제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실무 사례들을 통한 문제의 도출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론적 모형이나 가설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5. 빈도분석 등 기술적(descriptive) 통계 결과의 제시가 아닌 경우에는 통계적 기법, 심별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IV. ISR 논문 심사 및 모집에 대한 제언

본 장에서는 ISR 저널에 투고된 논문이 '실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실무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산업계 편집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이후 논문심사 절차와 기준에 이 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 4.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는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연구/실무경력을 고려하여 편집 분야별로 복수의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또한 투고논문의 실무 적합성을 논문 심사 의뢰 이전에 판단하여 필터링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소속한 복수의 편집위원을 별도로 위촉한다. <표 3>은 편집위원 구성을 예로 보인 것이다.

<표 3> ISR 저널의 편집위원 구성의 예시

분 야	편집위원	
산업계(실무 적합성 검토)	xxx	xxx
경영혁신	xxx	xxx
DB/CRM/KM	xxx	xxx
e-Biz	xxx	xxx
IT Management	xxx	xxx
사례 연구	xxx	xxx

##### 4.2 논문심절차

ISR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분야별 편집위원에 회부하기 이전에 먼저 산업계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실무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2) 산업계 편집위원은 기본적으로 제 III장에서 논의된 '논문의 종류'와 '논문의 구조 및 방식'의 내용에 근거하여 투고논문의 실무 적합성을 판단한다. 만약 실무 적합성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송하거나, '경영정보학연구'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무 적합성이 적절한 수준 이상일 경우 이 논문은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회부되고, 분야별 편집위원이 선정하

2) 모든 투고논문이 산업계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복수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의뢰된다.

### 4.3 논문심사 기준

일단 산업계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하여 ISR 저널에 적합한 논문으로 판정이 된 논문은 이후 실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ISR 저널에 투고된 논문은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사점,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서술의 논리성, 제목과 요약문, 참고문헌 인용 등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 4.4 논문 모집 방법의 다양화

현재는 논문 모집이 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후에 심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형태이므로 논문의 주제 및 성격 등의 측면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끝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체계이다. 특히 ISR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의 상당수가 통계적 가설 검증을 주된 도구로 삼는 현장연구이다 보니 어떤 개념이나 기술 등이 다수의 조직에 적용된 이후에야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 학회가 해당 분야의 신규 개념과 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내가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이슈를 평가자적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우리 학회가 결국 현장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정 주제영역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저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마치 세계적 학회지인 ACM의 Communi-

cations of the ACM 저널이 취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2007년 11월호의 경우 ‘Experimental Computer Science’라는 주제로 몇 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동시에 자발적으로 투고된 논문 몇 편도 실려 있다. 이런 시도가 우리 ISR 저널에서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다 상시화하고 논문 및 저자의 발굴을 보다 공개적이고 경쟁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V. 결 언

본 논문은 ISR 저널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무 지향적 저널로서의 재탄생을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특히 투고 논문의 종류, 구조 및 방식, 전략에 대한 내용과 편집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심사 기준, 논문 모집 방안 등에 대해 개괄적 수준이지만 나름대로의 제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제언들은 보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끌어내기 위한 단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 내용 이외에도 ISR 저널 재정립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본 논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문, 박충신, 김준석, 이호근, 임건신,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경영정보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5.
- Vessey, I., V. Ramesh, and R. L. Glass,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An Empirical Study of Diversity in the Discipline and Its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19, No.2, 2002, pp. 129-174.

## Suggestions for Transforming ISR into more Practitioner-Oriented Journal

Sung Kun Kim\* · Si Young Jang\*\* · Seung Ryul Jeong\*\*\* · Jae Nam Lee\*\*\*\*

### Abstract

Nobody doubts about the importance of both academic and practitioner journal. Recently, however, many researchers in IS field have presented their concerns on the identity of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Review (ISR). More specifically, they have been worried and concerned with the trend of deviation from the journal's original objective, which is to be the valuable practitioner-oriented journal in the IS field.

With the same view in our mind, we attempt to figure out how to fix this trend.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all papers published in the ISR. Based on the findings, we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ISR and discuss the submission guidelines about the more appropriate paper for the ISR in terms of methodology, type, and structure of paper. In addition, we propose the new review process for the newly submitted paper to the ISR.

We hope this paper triggers a vigorous argument among many I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make ISR the most prestigious outlet in the IS field.

**Keywords:** *Journal, Practice, Theory, Review and Editing*

---

\*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 Kookmi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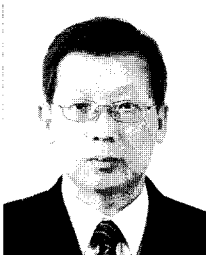
\*\*\*\*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 저 자 소 개 ◎



**김 성 근 (sungkun@gmail.com)**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Ph.D. 학위취득 후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로 재직중. 현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CIO포럼 대표간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Enterprise Architecture, IT Governance 등이다.



**장 시 영 (syjang@skku.ac.kr)**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미국 Pittsburgh 대학교에서 MIS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MIS의 계획 및 통제,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상거래 등이다.



**정 승 렬 (srjeong@kookmin.ac.kr)**

미국 위스컨신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석사를, 그리고 사우스 케롤라이나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프로세스 관리, ERP, 정보자원관리, 정보시스템 감리, 시스템 구현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Journal of MIS, Communications of the ACM, Informa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재 남 (isjinlee@korea.ac.kr)**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공학학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경영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City University of Hong Kong과 국민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기술 아웃소싱, 지식 경영, 인터넷 비즈니스 등이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MIS Quarterly, ISR, Journal of MIS, Journal of the AI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Communications of the ACM, Information & Management, 경영학 연구, 경영정보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 및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현재 Journal of the AIS, Communications of the AIS, Information & Management,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Management 등의 저널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2월 05일

1차 수정일 : 2007년 11월 07일